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황
: 분야별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황 : 분야별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윤민혜 선임연구원⁰¹

01 이 글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025년 2월 5일 업데이트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맵>을 심층분석한 것으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공식 입장이 아닌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 기술로,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대 분야로 구분된다. 국내 기후테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자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총 272개에 달한다. 이 중 에코테크(25.7%)와 푸드테크(27.6%)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소재, 대체육 생산 등 비교적 소규모 산업에서 창업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투자 현황을 보면, 클린테크와 카본테크 분야에 투자금이 집중되는 반면 지오테크와 에코테크는 상대적으로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글로벌 기후테크 Top100 스타트업 중 68%가 클린테크(33개)와 카본테크(35개) 분야에 속해 있다.

향후 국내 기후테크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기후테크 유니콘 10개 육성”과 같은 정량적 목표가 타당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클린테크와 카본테크 분야 중점 육성 전략과 함께, 국내 많은 기업이 포진해 있는 에코테크와 푸드테크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 잡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며	05
2	기후테크(Climate tech)란?	08
	2-1 기후테크(Climate tech)의 정의	
	2-2 기후테크의 세부분야	
3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시장 현황	13
	3-1 국내외 기후테크 스타트업 시장 현황	
	3-2 분야별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황	
	3-3 분야별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현황 분석	
4	글로벌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황은?	18
	4-1 글로벌 기후테크 Top100 스타트업	
	4-2 분야별 투자유치 Top 기후테크 스타트업	
5	나오며	22
	참고문헌	25

1

들어가며

1 들어가며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⁰².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감축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의 중심에 '기후테크(Climate Tech)'가 있다. 기존의 기술들은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없애거나 앞으로 나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현재 상용화된 기술과 초기 단계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의 약 65%만 감축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감축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⁰³.

02 우리나라의 NDC는 2021년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되었다.

03 BCG(2021), Private Investors Must Commit as Much as Eight Times more to the Low-Carbon Economy, Boston Consulting Group

이같이 기후테크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68억 달러였던 글로벌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2032년 1,4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 기후테크에 몰린 투자금은 1.6조 달러에 달한다. 또한 기후테크 유니콘 83개사의 기업가치는 약 1,800억 달러에 달한다⁰⁴.

우리 정부 역시 총 145조 원의 막대한 투자금이 투입해, 2030년까지 기후테크 유니콘을 10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⁰⁵.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현황은 어떨까?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04 한국무역협회(2024), 기후테크 산업 동향 및 우수기업 사례를 통해 본 성공 전략,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024년 7호

0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2023.10.16. 배포)

2

기후테크 (Climate tech)란?

- 2-1 기후테크(Climate tech)의 정의
- 2-2 기후테크의 세부분야

2 기후테크(Climate tech)란?

2-1 기후테크(Climate tech)의 정의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황을 보기 전, 우선 기후테크가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기술들이 기후테크에 해당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기술집행위원회는 기후테크를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장치, 기술, 실용적 지식 또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테크를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들 정의에는 기후테크라는 기술의 목적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기여하는 데에 있음을 전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세 가지 핵심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각각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관측(Observation)에 해당한다. 이들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감축(Mitigation):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적응(Adaptation):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관측(Observation): 기후 시스템의 변화를 모니터링

다시 말해,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그리고 데이터 관측을 통해 기후변화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2 기후테크의 세부분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기후테크에 해당할까? 우선 2023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테크 5대 분야(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를 정의해 발표했다. 이후 발표된 기후테크 육성안에서 일부 분류가 개정되었다. 우선 5대 분야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클린테크

재생·대체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탈탄소에너지, 에너지저장)

② 카본테크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 개발(탄소포집, 공정혁신, 모빌리티)

③ 에코테크

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자원순환, 폐기물감축, 친환경)

④ 푸드테크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재배 과정 중 탄소감축(대체식품, 스마트식품, 애그테크)

⑤ 지오테크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탄소데이터, 기후데이터, 기후적응)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 5대 분야의 정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기후변화에 적응,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등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일반적인 기술정의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푸드테크(Food tech)는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식품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모든 푸드테크가 기후테크 중 푸드테크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니다.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거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대체 식품은 기후테크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개인 맞춤형 건강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기후테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역시 2024년 보고서에서 ‘물산업 중 홍수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기후테크에 포함되지만, 기후 적응 목적이 없는 수질 관리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⁰⁶.

다른 분류체계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녹색기술센터가 2017년 제시한 ‘기후기술 분류체계’와 2024년 12월 개정된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그것이다. ‘기후기술 분류체계’는 정부의 R&D 투자와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 현황 파악을 위해 마련되었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주로 금융권의 녹색채권 발행이나 여신 심사에 활용된다. 이러한 분류체계들은 사용목적에 따라 특징이 다른데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각 분류체계를 연동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⁰⁷.

또 한 가지 참고할 점은 각 분류체계가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tonomy)’는 녹색경제활동을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누는데, 여기에는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등의 활동도 포함된다. 반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포괄 범위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한정되어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조금 더 밀접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5대 분야를 준용해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5대 분야 내 세부 기술분류는 아래와 같다.

06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2024), 국가 기후테크 육성 종합전략

07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2024), 국가 기후테크 육성 종합전략

표1. 탄소위 5대 분야 분류체계 (24년 개정본)

구분	개념	세부분류	
클린	재생·대체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신산업	가상발전소, 송배전, 분산형 에너지공장, 에너지 디지털화 및 효율화
		탈탄소에너지	원전, SMR, 수소, 핵융합 등 대체에너지원 발굴
		에너지저장	에너지 저장 장치, 차세대 배터리
카본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감축기술개발	탄소포집	직접포집(DAC), CCUS, 생물학적 탄소제거
		공정혁신	제조업 공정 개선, 탄소저감연·원료 대체
		모빌리티	전기차, 차량용 배터리, 물류, 퍼스널 모빌리티
에코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개발	자원순환	자원 재활용, 업사이클링, 폐자원 원료화, 에너지 회수
		폐기물절감	폐기물 배출량 감축, 폐기물 관리시스템
		친환경	친환경 소재 사용 제품
푸드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과정중 탄소감축	대체식품	대체육, 세포배양육, 대체유, 대체아이스크림
		스마트식품	음식물쓰레기 저감, 친환경 포장, 식품 부산물 활용
		에그테크	친환경 농업, 대체비료, 스마트팜, 기후적응 품종개발
지오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활용사업화	탄소데이터	탄소관측, 측정, 회계, 컨설팅 및 배출권거래
		기후데이터	기후감시·예측 및 컨설팅, 기상/재난 정보, 디지털 트윈
		기후적응	물산업, 재난방지, 기후변화 적응 시설·시스템

* 범위 : 녹색금융, 블록체인, NFT

출처: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2024)

3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시장 현황

- 3-1 국내외 기후테크 스타트업 시장 현황
- 3-2 분야별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황
- 3-3 분야별 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현황 분석

3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시장 현황**

3-1 **국내외 기후테크 스타트업 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시장 현황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을까? 우선 글로벌 시장부터 살펴보겠다.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 169억 달러(약 22조 원)이었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2032년에는 1,480억 달러(약 2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⁰⁸. 또한 유망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역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기후테크 전문매체인 그리니엄에 의하면, Pitchbook이 발표하는 유니콘 기업 가운데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은 2024년 1월 기준 54개로, 이 가운데 미국 기업이 25개, 중국 기업이 19개로 두 나라의 비중이 80%를 넘는다. 반면 우리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은 아직 하나도 없다⁰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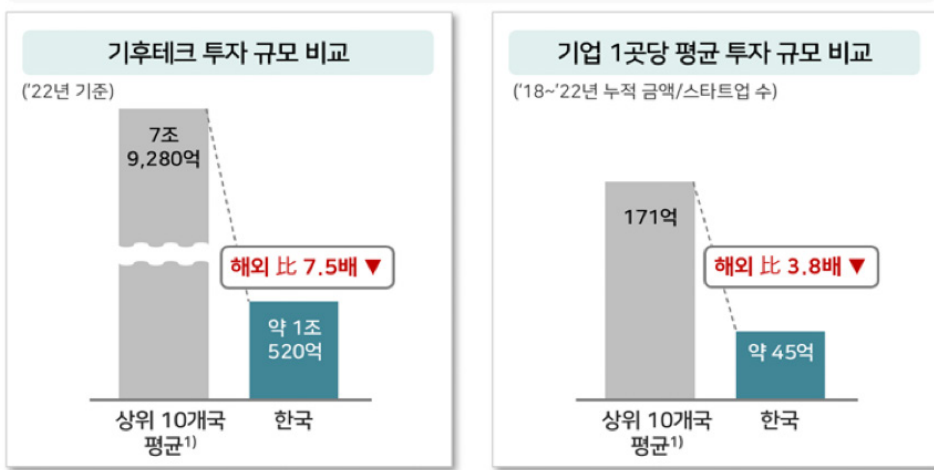
정책적 관심과 지원으로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역시 차츰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에 비해서는 투자 규모가 크지 않다. 2023년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08 한국무역협회(2024), 기후테크 산업 동향 및 우수기업 사례를 통해 본 성공 전략,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024년 7호

09 그리니엄(2024.2.18.),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현황

크 스타트업 투자 규모와 기후테크 투자 규모 상위 10개국의 평균 투자 규모는 7.5배 이상 차이난다. 또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1곳당 누적 투자금액 역시 상위 10개국 평균의 3.8배 이상 차이가 있다¹⁰.

그림1.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 규모 해외 주요국 대비 低



1) Dealroom 2022년 투자규모 TOP 10 국가 기준(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인도,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Source: PitchBook(2023.7), 혁신의 숲(2023.8), KPMG Analysis

출처: 아산나눔재단 외(2023)

10 아산나눔재단 외(2023), 2023 스타트업코리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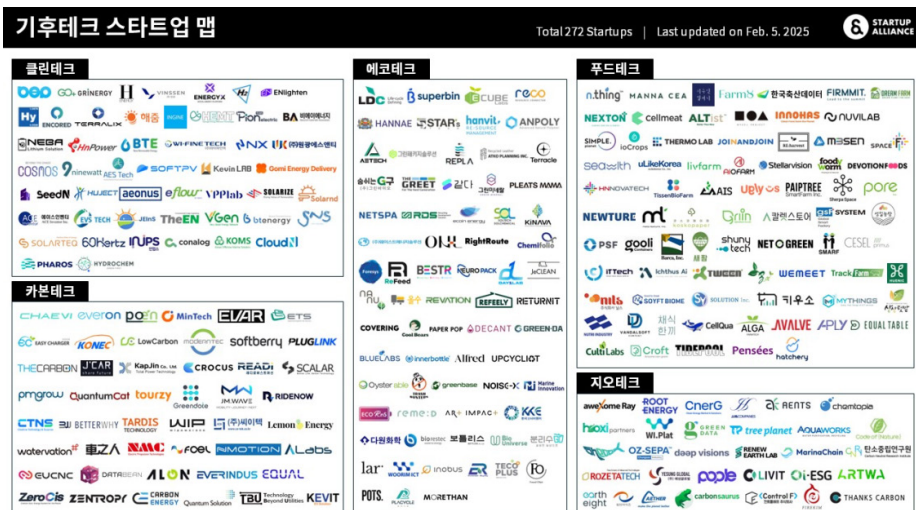
3-2 분야별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황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자체 집계한 바에 의하면, 2025년 2월 기준, 국내에는 총 272개의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다. 집계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언론보도 등을 기반으로 자체 집계한 투자 건 가운데 seed 단계 이상 투자를 유치한 곳을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2024년 12월 기준). 폐업한 곳, 상장하거나 인수된 곳, 타 기업의 자회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2. 기후테크 분야는 언론보도, 기업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분류했다(사업내용이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이 조금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분야로 분류했다).

각 분야별 비중으로 살펴보면 클린테크가 18.0%, 카본테크가 17.3%, 에코테크가 25.7%, 푸드테크가 27.6%, 지오테크가 11.4%를 차지하고 있다. 업사이클링, 친환경 소재 제품 생산, 대체육 생산, 친환경 농업과 같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분야인 에코테크와 푸드테크 분야에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포진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탄소관측 및 예측, 배출권 거래 등 고도의 기술과 인프라가 필요한 지오테크 분야 스타트업은 아직 많지 않다.

그림2. 기후테크 스타트업 맵



3-3 분야별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현황 분석

다음으로 5대 분야 구분에 따라 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현황이 어떤지 분석했다. 누적투자유치금액의 평균, 가중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했다. 누적투자유치금액이 파악되지 않은 곳은 제외했다. 국내 272개 스타트업 가운데 누적투자금액이 파악된 곳은 총 209개였다¹¹.

표3.

구분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합계
기업 수	36	37	55	61	20	209
최대 누적투자유치금액	4,740.0	1,750.0	771.0	381.0	71.0	4,740
평균 누적투자유치금액	249.6	157.6	74.9	71.0	24.6	113.7
가중평균						159.5
표준편차						363.1

(단위: 개, 억원)

분석한 결과, 투자금이 특정 분야에 집중된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야별 투자금액을 고려한 가중평균은 159.5억 원, 표준편차는 363.1억 원으로 산술평균(113.7억 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투자금액이 큰 분야의 영향이 큼을 의미한다. 특히 클린테크와 카본테크 분야는 총 투자금과 평균 투자금 모두 다른 분야에 비해 커, 시장의 주요 자금이 이들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시장의 성숙도와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특히 지오테크 분야의 경우, AI 기반 에너지관리 예측 솔루션이나 탄소회계 플랫폼과 같이 면밀한 데이터 관측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비즈니스 성숙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또한 에코테크 분야의 경우, 대부분 폐플라스틱 재활용, 친환경 포장재와 같이 대량 생산과 상용화 단계에 비교적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1 누적투자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곳은 정확한 투자금액을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거나 소액투자 유치일 가능성이 높다. 누적투자금액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자체 집계자료와 더브이씨(TheVC)의 기업 조회 자료를 상호보완해 활용했다.

4

글로벌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황은?

- 4-1 글로벌 기후테크 Top100 스타트업
- 4-2 주요 글로벌 기후테크 스타트업

4 **글로벌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황은?**

4-1 **글로벌 기후테크 Top100 스타트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기후테크 투자금은 클린테크와 카본테크 분야에 쏠려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은 어떨까?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및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기관은 2023년 공동으로 글로벌 기후테크 Top100 스타트업을 리스트업하고 분석한 바 있다. 분석은 2023년 7월 Pitchbook 기준 누적투자액 상위 100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했다. 이 리스트에 의하면 글로벌 기후테크 Top100 스타트업 중 절반을 훌쩍 넘는 59개 기업이 미국과 중국 스타트업으로 나타나, 미국과 중국의 점유가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들 100개 스타트업의 기후테크 영역 분포를 확인한 결과가 아래 표와 같다. 클린테크(33개)와 카본테크(35개)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 감축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에코테크(7개)나 지오테크(5개) 분야는 상대적으로 큰 투자를 받은 곳이 많지 않다.

표4.

구분	기후테크 분야 ¹²					합계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	
기업 수	33	35	7	20	5	100
분야별 Top 국가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단위: 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린테크 분야에는 태양광 에너지, 풍력에너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과 같은 기술이, 카본테크에는 탄소 포집저장, 탄소 저감기술, 그리고 전기차와 같은 모빌리티가 포함된다. 이들 분야에 투자가 쏠리는 것은 이들 분야의 기술 성숙도와 상용화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 클린테크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투자 대비 성과가 뚜렷하다. 카본테크는 탄소 감축 효과가 입증된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다. 특히 RE100과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클린테크, 카본테크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12 글로벌 Top100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앞서 설명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의한 기후테크 분야 기준을 적용해 분류한 것이다.

4-2 분야별 투자유치 Top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후테크 분야별 가장 투자액이 많은 글로벌 스타트업은 각각 StartCampus(클린테크, 포르투갈), Northvolt(카본테크, 스웨덴), Redwood Materials(에코테크, 미국), Impossible Foods(푸드테크, 미국), Generate(지오테크, 미국)다. 이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StartCampus (클린테크, 포르투갈)

포르투갈에 본사를 둔 클린테크 기업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개발하고 운영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인프라를 강조하며, 포르투갈의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StartCampus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데이터 센터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적 운영을 선도하고 있다.

▶ Northvolt (카본테크, 스웨덴)

스웨덴의 카본테크 기업으로,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위한 고성능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한다. 2016년에 설립된 Northvolt는 유럽 내 배터리 생산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며, 지속 가능한 배터리 제조를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생산 공정을 도입했다. Northvolt는 현재 유럽 내 주요 배터리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Redwood Materials (에코테크, 미국)

Redwood Materials는 미국의 에코테크 기업으로, 배터리 재활용 전문으로 한다. 2017년에 테슬라의 공동 창립자인 J.B. Straubel에 의해 설립된 이 회사는 사용된 배터리와 전자 폐기물에서 금속과 재료를 추출하여 새로운 배터리 생산에 재사용하는 순환 경제 모델을 추구한다.

▶ Impossible Foods (푸드테크, 미국)

Impossible Foods는 미국의 푸드테크 기업으로, 식물 기반의 대체 육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2011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동물성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식물성 재료로 고기와 유사한 맛과 질감을 구현한 제품을 선보였다. Impossible Foods는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대체 육류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레스토랑과 소매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 Generate (지오테크, 미국)

Generate는 미국의 지오테크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운영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 회사는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 폐기물 관리,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

5

나오며

5 나오며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에코테크(25.7%)와 푸드테크(27.6%)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는 업사이클링, 친환경 소재, 대체육, 스마트 농업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국내 기후테크 생태계에서는 클린테크와 카본테크에 투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분야별 투자금액을 고려한 가중평균이 159.5억 원, 표준편차가 363.1억 원으로 산술평균 113.7억 원보다 큰 것은 전체 투자금액이 큰 분야의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클린테크와 카본테크는 총 투자금과 평균 투자금 모두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아, 시장의 주요 자금이 이들 분야로 집중되는 반면, 지오테크와 에코테크는 평균 투자금과 총 투자금 모두 낮아, 상대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덜 받고 있다.
3. 글로벌 기후테크 Top100 스타트업 분석 결과, 클린테크(33개)와 카본테크(35개)가 전체의 68%를 차지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들 분야에 투자금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기후테크 Top100 스타트업의 68%가 클린테크(33개)와 카본테크(35개) 중심인 반면, 국내에서는 클린테크와 카본테크 분야 총 스타트업 수가 73개에 불과하다(클린테크 36개, 카본테크 37개). 글로벌리 투자액이 높은 스타트업들이 클린테크와 카본테크 분야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2030년 기후테크 유니콘 1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클린테크와 카본테크에 대한 지원과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자금과 정책을 클린테크와 카본테크 중심으로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까?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기후테크 생태계는 에코테크와 푸드테크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 분야는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특히,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차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를 들어, 대체육, 친환경 농업, 폐기물 업사이클링과 같은 기술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기후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클린테크와 카본테크 중심의 투자 전략과 함께, 에코테크와 푸드테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클린테크와 카본테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니콘 기업 육성에 유리하지만, 에코테크와 푸드테크는 생활 밀착형 기술로 빠른 시장 확장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투자자들은 두 분야를 상호 보완적인 기후 대응 전략으로 인식하고, 산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테크 유니콘 10개 육성”이라는 목표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유니콘 기업 수가 정체된 상황에서¹³, 정부가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낙관론으로 보인다. 현재 유니콘 기업의 감소는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의 탄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기후테크 분야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장기간의 투자와 안정적인 시장 형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단순한 수치 목표보다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장기적인 지원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니콘 기업 탄생 자체를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 국내외 전문가들 역시 대표적 유니콘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으로 수십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으나, 정작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현상, 시장 왜곡과 문서상 기업가치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초래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 바 있다^{14,15}.

13 CB Insights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은 15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까지 국내 유니콘 기업이 22개라고 발표해왔으나, 이후 지속된 일부 기업의 기업가치 하락, 글로벌 기준과의 상이함 등이 제기되어 현재는 유니콘 기업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14 CowboyVentures(2024), Welcome Back to the Unicorn Club, 10 Years Later.

15 월간중앙(2023.11.23. 보도), [K-유니콘의 비상을 위한 조건] 가짜 뿔을 가진 유니콘

또한 국내 기후테크 전문가들은 기후테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리스크의 크기로 투자가 결정되는 분야이므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사인(sign)을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유효하나, “기후테크 스타트업 10개 육성”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황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없는지, 개별 기업이 한계에 다다른 영역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성장 지원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 기후테크센터가 2023년 10월 개최한 “기후테크 포럼”, 2024 COMEUP SIS(Sustainable Innovation by Startup) 스페셜 세션에서 발표되거나 토론된 내용이다.

참고문헌

1. 보고서, 리포트

BCG(2021), Private Investors Must Commit as Much as Eight Times more to the Low-Carbon Economy, Boston Consulting Group

CowboyVentures(2024), Welcome Back to the Unicorn Club, 10 Years Later.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2024), 국가 기후테크 육성 종합전략

아산나눔재단 외(2023), 2023 스타트업코리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한국무역협회(2024), 기후테크 산업 동향 및 우수기업 사례를 통해 본 성공 전략,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024년 7호

2. 보도자료 등 기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2023.10.16. 배포)

그리니엄(2024.2.18. 보도),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현황

월간중앙(2023.11.23. 보도), [K-유니콘의 비상을 위한 조건] 가짜 뿔을 가진 유니콘



**STARTUP
ALLIANCE**

발행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기획/제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발행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5,

11층(논현동, KTS 빌딩)

<https://startupall.kr>

발행일 2025.2.27.

ISSN 2982-4834

이 책의 저작권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있으며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